

보도자료

2010년 3월 30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와이브로활성화팀 김동철 팀장(☎750-1880)
와이브로활성화팀 양기성 사무관(☎750-1881)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최시중 위원장 미래 무선 IT 개발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 3. 30(화) SKT가 IT 모바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픈한 T-아카데미를 방문하여 교육생을 격려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3.30, 10:30 ~ 11:30)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과거의 무선인터넷 시장은 이통사가 콘텐츠 유통을 독점하여, 이통사와 연계된 대형 콘텐츠 사업자 중심으로 무선 콘텐츠가 유통되었다. 그러나, 최근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1인 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도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무선콘텐츠로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무선인터넷 생태계 변화의 주역으로 떠오른 1인창조기업과 개발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개인개발자, 중소 IT 개발자, 지도 교수 등이 참석하여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개발인력 양성 및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무선인터넷의 생태계 변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해외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무선인터넷 산업은 여성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성공을 일궈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연구동에 위치한 SKT T-아카데미를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나라 무선인터넷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을 무선인터넷 강국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2월 대기업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IT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무선인터넷 강국 건설에 매진할 계획이다. 끝.

붙임 : T-아카데미 방문 및 대학생간담회 계획

< 붙임 >

T-아카데미 방문 및 대학생간담회 계획

□ 일정 : 2010. 3월 30(화), 10:00~11:30

□ T-아카데미 격려

○ 시간 : 10:00 ~ 10:30

○ 장소 : T-아카데미 (서울대 연구동(낙성대))

※ T-아카데미 : SKT가 모바일 관련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하는 교육센터로 3.29일 Open식 및 교육개시

□ 대학생과의 간담회

○ 시간 및 장소 : T-아카데미 방문 직후 10:30 ~ 11:30, T-아카데미 회의실

○ 참석대상 : 15명

- 방통위(3명) : 위원장, 통신정책국장, 대변인
- 대학생/교수(9명) : T-아카데미 교육생, 베스트셀러 App 개발 대학생 및 교수
- 개발자(3명) : 모바일 콘텐츠관련 협력업체 개발자

○ 간담회 주요내용

- 위원장님 격려 말씀
- 모바일 콘텐츠/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애로 및 건의

< 행사 일정(안) >

시간	내 용	비고
10:00 ~ 10:10	T-아카데미 소개	연구동 1층 강의실
10:10 ~ 10:30	교육생 격려 및 테스트베드 순방	2층 강의실과 1층 테스트베드
10:30 ~ 11:30	간담회	연구동 1층 회의실